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병오년 새해

시편: 80장

후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을 덮었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멧돼지로 하여금 훔쓸게 하시고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시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여, 돌아오소서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어, 포도밭을 찾아오시어 지켜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불을 지르고 그것을 베어낸 자들
진노하시는 주의 면전에서 죽어 없어지리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들 위에 주를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으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성경말씀: 갈라디아서 4 장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로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43. 주님의 불 (2)

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이 타고나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타고나면
죄악은 소멸될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타고나면
온 천지 만물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불이 타고나면
우리 영혼은 정결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심장이
당신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오! 성스러운 사랑의 불이여.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119장 25~32절

후렴: (주께서 이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주의 법도를 따라 달려가리다)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엎어져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적을 목상하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으니
주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이 마음을 넓혀 주셨기에 주의 법도를 따라 달려가리다)

성경말씀: 요한1서 2 장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펴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주님 닮게 해 주소서.
주님, 주님 닮게 해 주소서.
부족한 자식을 써서 주님같이 거룩히 만들어 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8장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위엄 찬송하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하며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관대 나를 이처럼 극진히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관대 나를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과 바닷길을 다니는 물고기들
하나님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29~3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다 성취된 일입니다.

완전한 일입니다.

완전히 성립된 일입니다.

영생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참예하는 일은 구원이 됩니다.

시편: 23장

후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성경말씀: 이사야 60 장 1~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깁깝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성경 말씀은 소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고전이 아닙니다.

이천 년 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현재 말씀이 살아있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실제로 우리들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어떤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시편: 71장 15~24절

후렴: (온종일 나의 입은 주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리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주의 정의를 전하리다
내가 주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적을 전하였나이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무안을 당함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온종일 나의 입은 주의 정의를 세상에 알리리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4 장 18~20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증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는 것같이 그 뜻만 이루려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9장 49~56절

후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가 되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됨이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조롱하여도
주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계명을 기억하며
주여, 나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그네살이 하는 이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때문이니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이것이 고통 가운데 제 위로가 되나이다)

성경말씀: 요한계시록 21 장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증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성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만 사랑을 받게 해 주세요.' 그것이 대원(大願)입니다. 사람이 큰 원을 품어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64장

후렴: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음모를 꾸미니 그들은 누가 보리요 하나이다
그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이다

불의한 것을 속으로 꾸며내고
저들은 꾸민 것을 숨기나이다
저들 각자의 생각과 그 마음은
도무지 해아리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활을 쏘시리니
저들은 당장 상처를 입으리라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 맞아 쓰러지면
보는 사람마다 다 머리를 내저으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0 장 51~52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불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불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마음을 보시는 임이여! 마음을 들으시는 임이여! 마음을 아시는 성스러우신 임이여!
누구든지 먼저 아상我相의 마음이 깨지고 성스러우신 임께 귀의하는 것만이 급선무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32장 11~18절

후렴: (주께서 거하실 거처로 시온을 택하였도다)

주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시며
돌이키지 않으실 언약을 맺으시네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찌라
그들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뿐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거하실 거처로 시온을 택하였도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6 장 47~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증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보는 눈물 속에 와 계십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여 땀 흘리며 고생하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죄를 짓고 눈물을 흘릴 때 찾아 주셨습니다.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찾아 오셨습니다.
가슴속에 오셔서 은총으로 제 영혼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45장 1~13절

후렴: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나의 왕이신 내 하나님을 기리리다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높이 기리리다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주는 위대하시고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
그 위대한 행적은 측량할 길 없나이다
주가 하신 일들 대대로 선포하리니
능하심도 대대로 일컬어지나이다

주의 위엄의 찬란한 영광 사람들이 말하고
그 묘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리다
이룩하신 놀라우신 일들 전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그지없는 인자하신 주를 잊지 않고 전하며
주의 크신 의로우심을 높이 외치리다
주는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사랑이 지극하시나이다

주는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삐 여기시리다
일체 주의 조물들이 주여, 주를 찬양하고
성도들이 주께 조아려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 나라의 영광을 들어 말하며
주께서 행하신 능력을 일컬으리다
주의 장하신 일 사람마다 아셨고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날이면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2 장 16~18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공기는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이 우주의 숨이고, 천지만물의 숨이므로 그 숨은 우리들의 코와 폐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자비가 임한 곳에는 누구든지 용서가 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19장 81~88절

후렴: (주여, 주의 자애에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의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않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 벌하시겠나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으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법을 내가 지키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자애에 따라 나를 살려 주소서)

성경말씀: 요한1서 5 장 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증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하옵신 성품은 밝고 깨끗했을 터인데, 제 잘못된 습관으로 더럽혀졌고 그르쳐 버렸고,

어둡게 만들어 버렸사오니,
주여! 제 성품 다시 찾아 주옵소서.
성품이 밝아지기 전에 아무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품이 밝아지려면 습관을 한 가지씩 고쳐야겠습니다.
저는 제 습관을 못 고치오니 주님 바로 잡아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8장 1~9절

후렴: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리다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주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돋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피신함이 훨씬 낫도다 사람을 믿기보다 훨씬 낫도다)

성경말씀: 이사야 42 장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순결이란 모든 세상적 허욕이 떠난 마음자리요, 모든 육정의 미련이 떠난 마음자리요, 그것은 깨끗한 예수님 마음속입니다.
오, 순결은 가난한 마음자리에 깃들입니다.

가난이란 자아가 완전히 포기된 겸손한 마음자리요, 모든 자애심(自愛心), 자고심(自高心),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박고 새로 난 사람의 마음자리입니다.

오, 가난은 순명한 마음자리에 깃들입니다.

순명이란 절대의 영혼의 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사랑을 받은 후,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항복한 사람의 절대 겸손한 마음자리에 깃들이나이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시편: 136장 11~26절

후렴: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유산으로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도다)

성경말씀: 빌립보서 4 장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저는 몸과 흙이 둘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임의 성스러운 사랑이 저 흙 속에 숨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살 속으로 들어와 감쪽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 어느 때, 그 언제 그 누가 그렇게 하였더란 말입니까?
그것은 임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천상적인 대접이었습니다.
흙은 제가 날마다 먹는 밥과 채소 속에 숨어서 제 살이 되고 피가 되었고 제 모세혈관을 돌아서 제 심장 깊이 들어와 돌고 있었으니
그 누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었더란 말입니까?(요한복음 14장 17절 참조)
오! 그는 친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었나이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시편: 21장

후렴: (주 안에 영원한 복이 있어 주 앞에서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주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않으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주께 생명을 빌었더니
영원토록 긴긴 날을 그에게 베푸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이다

왕이 주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않나이다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리니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네가 노할 때에 그들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네가 그들 후손을 땅에서 멸하리니
그들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그들은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그들로 돌아서게 하리니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안에 영원한 복이 있어 주 앞에서 기쁨으로 넘치나이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5 장 36~41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倨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들은 항상 길 잊은 양처럼 찾고 있는 영혼들이며, 완덕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알아 흡모하기는 하지만, 그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에 이르지 못한 고아들입니다.

참사랑을 그리워하는 어린양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시편: 67장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드러내소서
또 다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소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찌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곡백과가 땅에서 났으니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이로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0 장 26~33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깃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증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펴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옵니다.

죄를 짚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진실을 원하옵나이다.
빚을 갚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진실케만 해주시면 저는 허망한 몸 안 되겠습니다.
실(實)을 주옵소서. 미리 작정할 때, 제 생각으로 말고, 주님 뜻 아닌 것은 원치도 말게 해 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9장 113~120절

후렴: (주는 저의 피난처시니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찌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불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불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끼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저의 피난처시니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숱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고린도후서 12장 9절 참조) 내가 허물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병을 안 고쳐 주시는 것은 나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시편: 22장 1~11절

후렴: (날 때부터 주께 바쳐진 이 몸이라,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둑지 않으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온종일 불러봐도 대답 하나 없으시고
밤새도록 외쳐도 모르는 체하십니까
주는 옥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은 구하심을 받았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않았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요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나이다

저가 주께 의탁하니 구원하시겠지
저를 기뻐하시니 빼내주시겠지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니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날 때부터 주께 바쳐진 이 몸이라,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네)

성경말씀: 요한복음 16 장 22~24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저는 제 '얼'도 못 사랑하오나 주님께서 쉬지도 않으시고 제 '얼' 위해 수고하시나이다.
그 은혜로 여태껏 이 몹쓸 것의 생명을 보전해 왔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귀하고 중하도소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월 17일 토요일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봇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물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2 장 6~10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증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네 가슴의 슬픈 소리를 임께 다 아뢰십시오.
임은 만물의 세포가 우는 아픈 가슴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 깊은 가슴속의 비밀을 들어주시는 어머니입니다.
성스런 임께서 제 가슴 아픈 마음의 소리를 다 들어 주시는 그것으로도 제 아픔이 곧 치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23장

후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성경말씀: 이사야 49 장 5~7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증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목상 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용서와 자비로 오신 것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9장 1~7절

후렴: (주는 나의 등불을 밝혀 주시고 나의 어둠을 비추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도다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등불을 밝혀 주시고 나의 어둠을 비추나이다)

성경말씀: 빌립보서 1 장 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증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57. 지지리에서 (2)

지지리 산골 여름이 기울 무렵,
너무나도 화려하게 차려입은 나비 한 마리가 날아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동하여 나비를 잡을 뻔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시편: 88장 8~18절

후렴: (주여, 내 기도가 주님 어전에까지 높이 미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께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그들에게 가증되게 하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없는 사람이 되살아서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말하리이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보이기나 하리이까
잊음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다
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사방에서 나에게 밀어닥쳐
한꺼번에 나에게 완전히 덮쳤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께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기도가 주님 어전에까지 높이 미치게 하소서)

성경말씀: 에베소서 1 장 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음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58. 수난 당하신 주님

이 몸은 벌레입니다.
이 몸은 구더기입니다.
이렇게 낯고 천한 몸을 건져주시려
주님은 미리서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희롱을 당해야 할 이 몸인데,
주님 당신이 가로막고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시편: 119장 145~152절

후렴: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죄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법을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창세기 50 장 15~21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증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요, 내가 남을 어쩔까요, 내가 물질을 어쩔까요,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이시여, 긍휼히 보아주소서.
제게는 주님 긍휼밖에 바랄 길이 없사옵나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누구나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시편: 25장 1~11절

(주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나니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여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나니
주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언약과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이니라

주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7 장 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부인하고, 자기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수억만 년 동안 조상으로부터 받은 고집, 자존심, 다시 말하면 뱀이나 늙은 용은 하느님을 거역하는 고집이 있어 순종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복하고 마음을 비워야 성령이 오십니다.
거지라도 깡통을 비워 놓아야 밥을 줍니다.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를 항복시키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고집하면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시편: 28장

후렴: (주는 목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앞에서 잠잠하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그들 손의 지은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들은 주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않으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니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 찬송하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상속으로 주신 땅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목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4 장 25~27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중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分辨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질 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분이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시편: 130장

후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주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찐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찌어다
주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바로 주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성경말씀: 요한1서 3 장 16~20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증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다른 분들이 저의 죄의 수효를 아는 것보다, 제가 제 죄 가짓수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남이 제 죄를 중하게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하게 제 죄를 시인케 하옵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뭇 백성이 이 몸을 예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예워싸고 예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예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4 장 18~20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증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주의 어느 공간에 우주를 깨끗이 하는 원리가 있듯이 인류의 역사에도 사람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박힌 십자가의 사랑의 불입니다.

오,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사랑 한복판에는 온 인류의 쓰레기인 죄를 다 불태우는 제단이요, 모닥불이 있습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7장 1~9절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저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어
나를 위하여 깨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4장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중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달은 스스로 빛이 없지만 태양의 반조로 빛이 있음 같이 사람 스스로는 절대의 지혜와 빛이 없지만, 하느님의 덕을 받으면 지혜의 빛이 반조 됩니다.
마치 지구 스스로의 열은 부족하여도 태양의 열을 채워 받은 후에야 만물의 생명을 길러 낼 수 있음 같이, 사람 스스로의 지혜와 자비만으로는 부족하여도

성스러운 임의 지혜와 자비를 채받은 후에 제덕諸德이 완성되어 천지와 더불어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력의 덕과 타력의 덕을 합할 때 한 인격이 완성됩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13장

후렴: (나의 하나님, 굽어보시어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여, 내 하나님이며,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나이다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하나님, 굽어보시어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성경말씀: 요한1서 5 장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증보기도: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소외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주위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23. 사랑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미워함이 없습니다.
미워함이 없어진 자리만큼
주님의 사랑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분열의 자리만큼
하느님의 화목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사랑함도,
우주를 사랑함도,
그리고 자기를 사랑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에서 시작 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7장 10~17절

후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악한 자들의 악행은 뿌리 뽑으시고
의인들은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시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그 칼을 갈으시리니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리니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고
잔해와 궤ulu를 놓았도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 것 만은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되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리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8 장 34~36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중보기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 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 되는 데 무익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 사람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천지도 창조된 것입니다.
십자가도 나 하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것인데, 안 믿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시편: 119장 153~160절

후렴: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으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탓이니라
주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팝박하는 자와 나의 원수가 많으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
나는 그 배신자들을 보며 역겨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성경말씀: 이사야 2 장 2~4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사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할 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를 소망이 넘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 말고, 다른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참 복된 길임을 아시지요.

시편: 26장

후렴: (주여, 나는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리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않았나이다

주를 믿고 의지하였나니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걷고 있었나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앓지 않았나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않나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앓지 않나이다

주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사아며

주의 제단 둘레를 돌고 있나이다

찬미의 노래소리 울려나게 하면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다

주여,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놔두지 마소서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놀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다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셔나니 회중에서 주를 송축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는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리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3 장 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증보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사

적인 마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희망의 불로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싸워야 합니다.
참아도 은혜로 참으면 기쁘겠습니다.
겸손해도 주의 은혜로 겸손되면 기쁘겠습니다.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시편: 34장 1~10절

후렴: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주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주로 자랑하리니
곧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이 곧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찌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2 장 6~10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중보기도:

일치의 주님, 공존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그저 예수님의 피를 우러러 보고 사모하는 마음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내 가슴에 한 방울만 떨어진다면 내 평생에 지은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내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으면 성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밥을 해주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찬물을 떠주면 그 사람은 성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십시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76장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주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주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5 장 1~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중보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의 깊은 골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소명(召命)으로 세우시옵나이다.
만 인간이 저마다 받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부르심 받은 이는 온유합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편: 40장 1~8절

(주여, 주의 사랑 그 진실하심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걷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복되어라 주께 그 믿음을 두는 사람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거짓된 변절자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을 그 누가 당해 내리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해도
그것들은 헤아릴 수 없도록 많나이다

주여, 주는 희생과 제물은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나 속죄의 희생일랑 드리라 하지 않으셨도다
오히려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주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나이다

보소서 이 몸이 주 앞에 대령하였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사랑 그 진실하심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소서)

성경말씀: 누가복음 2 장 28~33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증보기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과 종교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질 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분이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시편: 53장

(야곱은 기뻐 춤추고 이스라엘은 기뻐 즐거워하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리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도다

너를 대하여 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흘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고로
네가 그들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야곱은 기뻐 춤추고 이스라엘은 기뻐 즐거워하네)

성경말씀: 신명기 8 장 11~16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낫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증보기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오라.”(요한복음 14장 6절 참조)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몸을 빌려 재현하시고 똑같이 이 사랑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때 가졌던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시편: 55장 1~12절

후렴: (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 드려라, 그분께서 너를 불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나이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그들이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팝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나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 혀를 나누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리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이 있사오며
폭력과 사기는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 드려라, 그분께서 너를 불들어 주시리라)

성경말씀: 시편 71 장 14~15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증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여 인류의 평화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의 마음 고쳐지는 일은 참 난제, 우주 가운데 제일가는 난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안 고쳐지면 무엇이 되며, 무엇에 쓰겠나이까? 제 마음 안 고쳐지면 천하를 얻어도 무소유이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시편: 56장

후렴: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채워야 하리니, 찬미의 제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들이 심히 많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즉 두려워하지 않나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그들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그들이 죄악을 짓고야 피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여 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즉 두려워하지 않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붙들어 주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채워야 하리니, 찬미의 제사를 드리나이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7 장 31~37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불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앉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맷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증보기도:

교회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각처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전 인류의 아픈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사랑하고 함께 고통할 때 곧 빛이요, 신격(神格)이요, 인격(人格)이요, 자유인이요, 성인(聖人)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지고 죽어 줄 때에만 참 평안과 평화가 그 가슴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은 아니 올 수 없는 하늘의 이치였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58장

후렴: (사람들은 이르되 주께서 진정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도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찌라도,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주여, 짚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소서
그들로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유산된 태아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훨슬려가게 하소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람들은 이르되 주께서 진정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도다)

성경말씀: 미가 7 장 18~20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증보기도:

모든 민족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서로가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로 받아들여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이 영문領門 밖에는 희생의 현장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요,
사랑을 완성하는 자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영문 밖이 곧 지성소입니다.(히브리서 13장 11~13절 참조)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61장

(주여, 내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려 주소서
내 마음이 놀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7 장 7~12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증보기도: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불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불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22. 참 기쁨

믿음의 형제여
그대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실천한다면
육체는 비참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된 것은
그 희생의 자리가
그리스도 사랑의 희열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값진 희생은
온 인류와 우주를 감동케 합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뭇 백성이 이 몸을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5 장 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목상 글: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이 절대의 사랑입니다.
어서어서 우리는 빌고 또 빌어서 사랑의 은혜를 받읍시다.
자나 깨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시편: 71장 1~14절

(내 입은 주의 찬미로 가득 차 있어 온종일 찬양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토록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빼내소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불드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으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나의 입에 주를 찬송함이 가득 차 있고
종일토록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주께 희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입은 주의 찬미로 가득 차 있어 온종일 찬양하나이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1 장 4~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증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섬기나 자기 명예와 칭찬이나 모양을 꾸미면 우상 됩니다.
성전도 우상이 됩니다.
아버님, 이 자식 쓸데 있는 자식 되기 원하옵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시편: 74장 1~12절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주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하나님, 돌이켜 살피소서
주께서 얻으신 백성이 아니십니까

주의 소유로 속량하신 지파를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원수가 주의 회중에서 훤히하며
자기 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나이다

이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으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수가 언제까지 훼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주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나이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장 1~8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중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훌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이제 구하옵나니 저에게 욕과 환난과 고통만을 주시사, 달게 받고 지고 가게 하옵소서.
숨지는 시간까지 받도록 마련해 주옵소서.
너무나 과거가 행복스러웠었나이다.

시편: 70장

후렴: (주를 찾는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목숨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이
수치와 창피를 당케 하여 주소서

내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두고 조롱하는 자들은
낯을 가리고 도망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 하리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주여, 지체치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찾는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리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0 장 21~22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중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16. 사랑을 먹으라

어머니의 피와 살이 녹아

자녀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그분을 사랑할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살이 녹아나고
피가 닳아지는 사랑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요한6,56)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시편: 79장

후렴: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 주의 목장의 양떼들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유산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었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 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주변 사람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또한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쓸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쓸어부어 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쳐를 황폐케 함입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으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인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훼방한 그 훼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떼들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 주의 목장의 양떼들이나이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5 장 37~40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봐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중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꽃을 심었다 하더라도 꽃이 필 때까지 말이 없습니다.
참사랑은 말이 없습니다.
또 원손이 하고도 오른손이 모를 때, 그것이 절대의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22장 12~22절

후렴: (예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았도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보고 좋아라 하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의 겉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았도다)

성경말씀: 시편 51 장 6~8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증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동양 사람들은 옛적에 고 苦는 낙지본 樂之本이라 했습니다.
고생은 천국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고생은 천국 가는 뿌리고 자본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생도 복이다.
복만 복이 아니라 불행도 복이다.
모든 것이 아버지 사랑이다.' 고생한 것만 내 재산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시편: 34장 1~10절

후렴: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주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주로 자랑하리니
곧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이 곧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찌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말씀: 로마서 12 장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증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아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옵니다.
죄를 짓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원히 썩지 않을 유산입니다.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영적 재산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우리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76장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주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주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5 장 23~26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 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42. 주님의 불 (1)

제 영혼에 불을 지르신
주님의 신비여!
이 일을 다 겪을 때까지
고통과 괴로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말씀하셨을 지라도
당신 뜻을 이루소서.
사욕(邪慾)과,
편정(偏情)과,
편을 가름과,
혈기와 일에 대한 욕심과,
자신을 드러냄과 같은
주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을 태우소서.
이것이 제가 받아야할 진정한 세례입니다.
오! 주님의 불이여.
주님의 신비여.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82장

(만 백성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었도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엎더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 백성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이십니다)

성경말씀: 요한1서 2 장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 껍질, 그 속알, 그 맛.
만일 자비의 사랑에 껍질이 있다면
그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가복음 8장 34절) 라는 자기 부정과
십자가야말로 그 사랑의 껍질과 같은 것이요,

만일 자비의 사랑에도 속알이 있다면 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요한복음 15장 12절) 라는 것이 사랑의 속알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자비의 사랑에도 맛이 있다면 그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마태복음 11장 29~30절) "라는 평화의 영혼의 안식이야말로 그 사랑의 맛이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사랑에는 사랑의 껌질, 사랑의 속알, 사랑의 맛이 있사옵니다.

이같은 완전한 사랑을 제게도 은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2월 17일 화요일

시편: 88장 1~7절

(밤낮으로 부르짖는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다가섰나이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나이다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륙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에 몰아넣고
어둠 속 심연 속에 두셨나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밤낮으로 부르짖는 내 기도 들어주소서)

성경말씀: 이사야 57 장 15~16

그가 말하기를 돋우고 돋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화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52. 신(神)의 숨결

예수님의 숨이 우주의 숨이고,
천지만물의 숨입니다.
그 숨은 우리들의 코로 폐로 들어옵니다.
대지의 들어찬 공기는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김준호 글 재편집)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사순절 시작

시편: 94장 1~11절

(주께서는 진실로 나의 산성이며 이 몸 숨길 바위가 되시리다)

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으로 나타나 보이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주여, 악인이 언제까지 설치게 하시며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하겠나이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우나이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유산을 곤고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나이다

말하기를 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중 우준한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라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않으시라
주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진실로 나의 산성이며 이 몸 숨길 바위가 되시리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6 장 5~8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증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옵니다.
참 기도는 어디에서 울려 나옵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 성심을 따를 때 늘 기도가 됩니다.
참 감사는 어디서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계명대로 희생할 때 옵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순결한 참사랑으로 자비를 위하여 희생하는 계명의 완성입니다.
곧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때, 하느님의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불에 타서 사랑의 희생을 행할 때,
참 기쁨과 참 기도,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시편: 128장

후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가 손수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살리다)

복되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복되어라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가 손수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살리다)

성경말씀: 예레미야애가 3 장 22~26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봐 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죄가 아니고 자각이 있어서 내가 주님같이 못한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33장

후렴: (주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 주시니 영원토록 넘치는 생명 같아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위에 흉기 짙은 기름 바름 같고, 아론의 수염에 훌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 주시니 영원토록 넘치는 생명 같아라)

성경말씀: 이사야 41 장 8~10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아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들리라.

증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음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궁핍함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풍부에게 아버지를 떠나 살지 안해 개 주옵소서.
풍부한 가운데서도 궁핍을 즐기게 해 주옵소서.
궁핍한 생활을 더 잘하도록 도우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봇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물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미가 6 장 6~8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솟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증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요, 내가 남을 어쩔까요, 내가 물질을 어쩔까요,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은혜에 감격되어야 사는 것이 경쾌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업은 죽은 이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아쉬운 소리하던 처지에서 벗어나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은혜를 보답할 뿐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참 믿는 자입니다.

2026년 2월 22일 일요일

시편: 118장 19~29절

후렴: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 가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 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뿐에 맬찌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성경말씀: 시편 51 장 6~8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증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로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목상 글:

계시로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천국을 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권능을 알게 해 주십시오.
권능은 생명이요, 忘我(망아)의 권능이요, 克己(극기)의 권능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시편: 7장 1~9절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어
나를 위하여 깨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다니엘 2 장 20~22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증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펴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매일 아침 세 가지 서원의 뜻을 박고 결심합니다.

자기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뜻을 박습니다.

예수님께서 뜻 박혀서 피를 흘릴 때 자기 서원의 뜻을 박는 순간입니다.

수도자는 자신을 매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며 완성이 되기까지 매일 뜻을 박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4장

(주는 한결같이 의인들 곁에 계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주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여,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기뻐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한결같이 의인들 곁에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이사야 51 장 11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증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말씀으로 빛을 삼는 생활의 고귀함을 모릅니다.
허영에 날뛰고 자존심에 날뛰고 있는 까닭에 불행으로 불행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나이다.
말씀은 영이십니다.

말씀을 받지 않고는 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양식을 얻어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7장 10~17절

후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악한 자들의 악행은 뿌리 뽑으시고
의인들은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시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그 칼을 갈으시리니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리니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고
잔해와 궤ulu를 놓았도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 것 만은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되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리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성경말씀: 호세아 10 장 12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 때문에 감격되어 눈물의 바다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격되어 울어지이다. 감격되어 쓰러지이다. 감격되어 망해지이다.
감격케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읍케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읍하여 다른 생각이 없게 하옵소서.

시편: 25장 12~22절

후렴: (주여,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니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로다
내 눈이 항상 주를 앙망하리나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나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나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 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이 모질게도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말씀: 마태복음 19 장 23~3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구리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뭍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증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장소가 구원과 큰 관계가 되는 줄 아제야 알아집니다.

구원 받은 이는 간 데마다 낙원이요, 구원받지 못하면 간 데마다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장 161~168절

후렴: (제 영혼은 주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더없이 사랑하나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법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법을 지켰으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영혼은 주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더없이 사랑하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29~31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은혜와 울법은 하나요, 둘이 아닙니다.
울법은 밖이요, 은혜는 속일 뿐입니다.
울법 아래 있으면 좋입니다.
은혜는 속과 같아서 안에 평안과 기업이 있습니다.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은혜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시편: 34장 11~22절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아이들아 모두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주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는 모름지기 악을 삼가하고
네 입술을 거짓된 말에서 금하리로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를 따를찌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외치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화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악인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죽음을 당하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주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하시니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성경말씀: 이사야 61 장 1~3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목상 글:

복종하는 길은 행복스러운 이들이 택한 길이란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마음에 불만을 품거나 불평을 하지 말고 어린양과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몸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